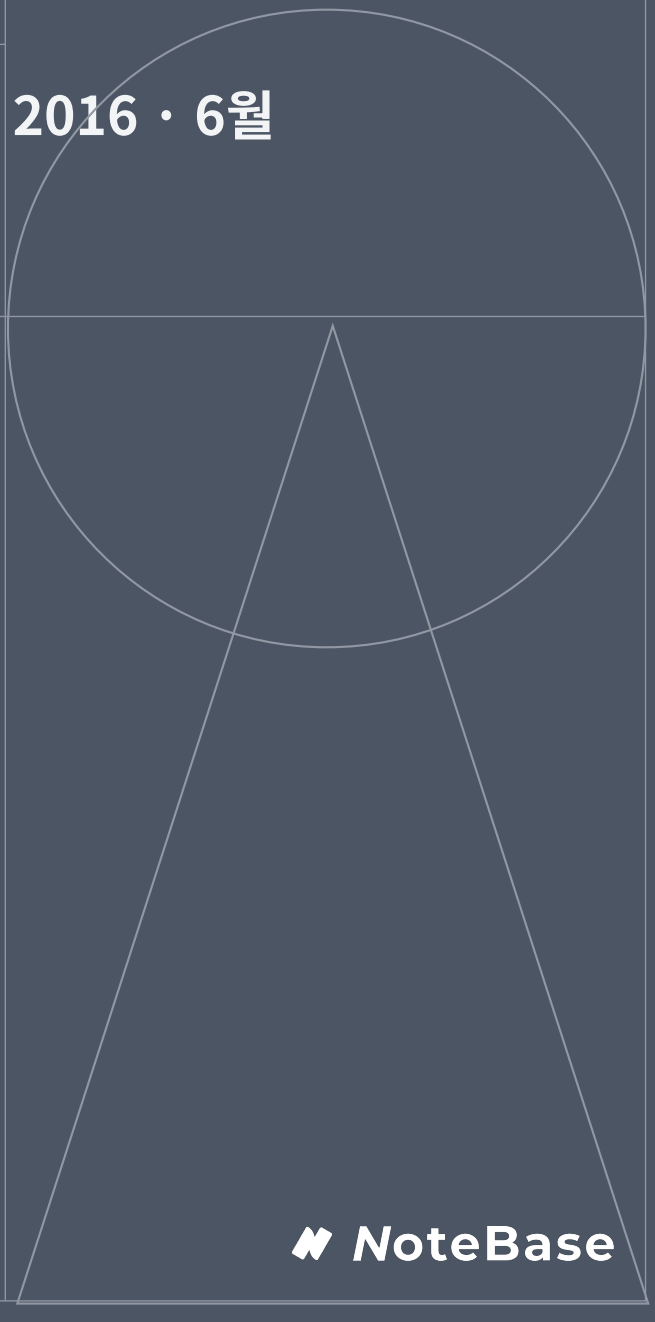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7급 · 국어 · 2016 · 6월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7급 · 국어 · 2016 · 6월

공무원/서울시/7급 · 국어 · 2016 · 6월

문 1. 다음 중 외래어 표기가 모두 옳은 것은?

① 룹스터(lobster), 시그널(signal), 지그재그(zigzag)

② 재즈(jazz), 마니아(mania), 브리지(bridge)

③ 보트(boat), 스윗치(switch), 인디안(Indian)

④ 유니온(union), 톱 크레스(top class), 휘슬(whistle)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외래어 표기법의 자음 앞 유성 파열음 표기, 파찰음 표기, 반모음 표기와 관용 표기를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자음 앞의 b, d, g는 원칙적으로 '으'를 붙여 적으므로 lobster는 '로브스터'가 된다.
어말 또는 자음 앞의 z는 '즈', ch 계열은 '치', j 계열은 '지'로 적으므로 jazz는 '재즈', switch는 '스위치', bridge는 '브리지'가 된다.
d, n 뒤에 오는 반모음 계열은 '디언/니언'처럼 적으므로 Indian은 '인디언', union은 '유니언'이 된다.
mania는 관용을 인정하여 '마니아'로 적는다.

선지별 해설

1번 X: '랍스터'가 틀린 표현이다. 자음 앞의 b는 '으'를 붙여 적으므로 올바른 표기는 '로브스터'이다. '시그널', '지그재그'는 맞지만 하나가 틀려 전체는 옳지 않다.
2번 O: '재즈'는 어말의 z를 '즈'로 적은 표기이고, '브리지'는 j 계열 소리를 '지'로 적은 표기이다. '마니아'는 관용으로 굳어진 표기이므로 셋 다 옳다.
3번 X: '스윗치'와 '인디안'이 틀린 표현이다. switch는 '스위치', Indian은 '인디언'으로 적는다. '보트'는 맞지만 두 항목이 틀려 전체는 옳지 않다.
4번 X: '유니온'과 '톱 크래스'가 틀린 표현이다. union은 '유니언'으로 적고, top class는 '톱 클래스' 또는 '톱클래스'로 적는다. '휘슬'은 맞지만 두 항목이 틀려 전체는 옳지 않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실제 사용 빈도가 높은 비표준 표기인 '랍스터', '인디안', '유니온'을 자연스럽다고 느끼면 틀리기 쉽다. 반대로 '마니아'처럼 관용으로 인정된 표기는 비표준처럼 보여도 정답 선지에 들어갈 수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단어를 눈에 익은 형태로 보지 말고 발음 구조로 나누어 본다. 자음 앞 b, d, g에 '으'가 붙는지, 어말의 z와 ch, j 계열이 각각 '즈', '치', '지'로 적히는지, d나 n 뒤의 반모음이 '디언/니언' 계열로 적히는지를 먼저 확인하면 빠르게 판단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로브스터, 스위치, 인디언, 유니언이 자주 틀리는 표기이고, 재즈·브리지·마니아는 표준 표기이다.

NoteBase

문 2. 다음 중 문형이 나머지 셋과 가장 다른 것은?

① 問征夫以前路

② 子將安之

③ 誰能與我同

④ 孰爲好學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한문 문장에서 의문사 유무를 보고 서술문과 의문문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문형을 고를 때는 먼저 문장의 기능을 본다. 사실을 진술하면 서술문이고, 誰·安·孰 같은 의문사가 쓰여 무엇인가를 묻으면 의문문이다.
①은 '길 가는 사람에게 앞길을 묻다'라는 서술이고, ②③④는 의문사가 들어간 의문문이다.
특히 ①의 問은 '묻다'라는 동사일 뿐 문장 전체가 의문문이라는 뜻은 아니다.

선지별 해설

① O
問征夫以前路는 '길 가는 사람에게 앞길을 묻는다'는 뜻의 서술문이다. 의문사가 없고 어떤 사실이나 행동을 진술하므로 나머지 셋과 문형이 가장 다르다.

② X
子將安之의 安은 '어디'를 묻는 의문사이므로 의문문이다. 틀린 표현은 '나머지 셋과 가장 다르다'이고, 실제로는 ③, ④와 함께 같은 의문문 계열이다.

③ X
誰能與我同의 誰는 '누가'를 묻는 의문사이므로 의문문이다. 틀린 표현은 '나머지 셋과 가장 다르다'이고, 실제로는 ②, ④와 문형이 가깝다.

④ X
孰爲好學은 앞의 글자가 '누가'를 묻는 의문사로 쓰여 의문문을 이룬다. 틀린 표현은 '나머지 셋과 가장 다르다'이고, 실제로는 ②, ③과 같은 의문문으로 보아야 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①에 問이 들어 있어 겉으로는 물음처럼 보이지만, '묻다'라는 동사가 있다고 해서 의문문이 되는 것은 아니다. 문장 안에 의문사가 실제로 쓰였는지와 문장 전체가 묻는 기능을 하는지를 따로 보아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한문 문형 비교 문제는 먼저 의문사부터 찾는다. 誰·孰·安처럼 직접 묻는 말이 보이면 의문문으로 묶고, 그런 표지가 없이 행동이나 사실을 진술하면 서술문으로 본다.

암기 포인트

問은 동사일 수 있고, 誰·安·孰은 의문사의 표지이다.

NoteBase

문 3. 다음 중 비표준어가 포함된 것은?

① 마을 - 마실

② 예쁘다 - 이쁘다

③ 새초롬하다 - 새치름하다

④ 부스스하다 - 부시시하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복수 표준어로 인정된 말과 여전히 비표준어인 말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을 기준으로 정한 말이다.
복수 표준어는 뜻이나 어감 차이를 인정하여 둘 다 표준어로 인정한 말이다.
비표준어는 널리 쓰이더라도 표준어로 인정되지 않은 말이다.

NoteBase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서울시/7급 · 국어 · 2016 · 6월

선지별 해설

① X
- '마을'과 '마실'은 모두 표준어이다.
- '마실'은 '이웃에 놀러 다니는 일'을 뜻하는 말로 표준어로 인정되었으므로, 이 선지는 '비표준어가 포함된 것'이 아니라 '표준어만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X
- '예쁘다'와 '이쁘다'는 모두 표준어이다.
- '이쁘다'는 '예쁘다'와 함께 복수 표준어이므로, 이 선지도 '비표준어가 포함된 것'이 아니라 '표준어만 포함된 것'으로 고쳐 이해해야 한다.

③ X
- '새초롬하다'와 '새치름하다'는 모두 표준어이다.
- 두 말은 어감 차이를 인정한 복수 표준어 관계이므로, 이 선지도 '비표준어가 포함된 것'이 아니라 '표준어만 포함된 것'에 해당한다.

④ O
- '부스스하다'는 표준어이지만 '부시시하다'는 비표준어이다.
- 따라서 이 선지는 비표준어가 포함된 경우로 맞다.
- 틀린 표현은 '부시시하다'이고, 올바른 표현은 '부스스하다'이다.

오답 포인트

'이쁘다'와 '새초롬하다'를 예전 기억만으로 비표준어라고 단정하기 쉽다. 이 문항의 함정은 실제 사용 빈도가 높아 나중에 복수 표준어로 인정된 말을 여전히 비표준어로 착각하게 만드는 데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비슷한 말이 짝으로 나오면 한쪽을 바로 비표준어로 단정하지 말고, 복수 표준어인지 먼저 가른다. 복수 표준어로 인정된 말은 모두 제외하고, 끝까지 표준어로 인정되지 않은 표현이 들어 있는 선지를 고르면 된다.

암기 포인트

마실·이쁘다·새초롬하다는 표준어이고, 부시시하다만 비표준어이다.

NoteBase

문 4.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평음, 경음, 유기음과 같은 삼중 체계를 보이는 것은 파열음과 마찰음이다.

② 한국어의 단모음에는 'ㅖ, ㅒ, ㅟ, ㅢ'도 포함된다.

③ 'ㅈ, ㅊ, ㅉ'을 발음할 때에는 파열음의 특성도 확인된다.

④ 'ㅑ'와 'ㅝ'에서 확인되는 반모음은 각각 [j](혹은 [y]), [w]이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한국어 자음의 조음 방식 분류와 단모음·반모음의 개념을 정확히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파열음은 발음 기관을 완전히 막았다가 터뜨려 내는 소리이고, 마찰음은 통로를 좁혀 마찰을 일으키는 소리이며, 파찰음은 막았다가 터뜨린 뒤 곧바로 마찰이 이어지는 소리이다.
한국어에서 평음·경음·유기음의 삼중 대립은 파열음과 파찰음에서 나타난다. 반모음은 모음과 결합해 미끄러지듯 이어지는 [j], [w] 계열의 소리이다.

선지별 해설

1번: X. 틀린 표현은 '파열음과 마찰음'이다. 한국어에서 평음, 경음, 유기음의 삼중 체계가 나타나는 것은 파열음과 파찰음이다. 마찰음은 이런 삼중 대립을 보이지 않으므로 '파열음과 파찰음이다'로 고쳐야 한다.
2번: O. 한국어의 단모음에는 ㅖ, ㅒ와 함께 ㅟ, ㅢ도 포함된다. 제시된 모음들을 단모음 범주에 넣은 설명은 옳다.
3번: O. ㅈ, ㅊ, ㅉ은 파찰음이므로 막음과 터뜨림의 요소 뒤에 마찰이 이어진다. 따라서 발음할 때 파열음의 특성도 확인된다는 설명은 옳다.
4번: O. ㅑ에는 [j](또는 [y]로 적는 반모음)가, ㅘ에는 [w]가 결합한다. 따라서 두 음절에서 확인되는 반모음을 각각 [j], [w]로 본 설명은 옳다.

오답 포인트

삼중 대립이 나타나는 자음을 묻는데 마찰음과 파찰음을 뒤바꾸면 1번에 걸린다. 특히 ㅈ, ㅊ, ㅉ을 마찰음으로만 막연히 기억하면 1번과 3번을 함께 흔들리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자음 분류 문제에서는 먼저 조음 방식이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 중 무엇인지 가른 뒤 삼중 대립 여부를 확인한다. 모음 문제에서는 단모음인지, 반모음이 결합한 소리인지를 따로 나누어 판단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삼중 대립은 파열음·파찰음, 반모음은 [j]·[w]이다.

NoteBase

문 5. <보기>는 「한글맞춤법」 제30항 사이시옷 표기의 일부이다. ㉠, ㉡, ㉢에 들어갈 단어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보기>
제30항 사이시옷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받치어 적는다.
1.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1)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고랫재 귓밥 ㉠ _____
(2) 뒷말의 첫소리 'ㄴ, ㅁ'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것
뒷머리 아랫마을 ㉡ _____
(3)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것
도리깻열 뒷윷 ㉢ _____

① ㉠: 못자리, ㉡: 멧나물, ㉢: 두렛일

② ㉠: 챗바퀴, ㉡: 잇몸, ㉢: 훗일

③ ㉠: 잇자국, ㉡: 뒷마루, ㉢: 나뭇잎

④ ㉠: 사잣밥, ㉡: 깻날, ㉢: 예삿일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한글 맞춤법 제30항에서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 세 경우를 예시어와 함께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사이시옷은 순우리말 합성어에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날 때 주로 적는다. 뒷말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면 (1), 뒷말 첫소리 ㄴ·ㅁ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면 (2), 뒷말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면 (3)이다. 이 문항은 그 조건과 규정 본문에 제시된 예시어를 정확히 연결하는지가 핵심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못자리는 (1) 된소리 예시이고, 멧나물은 (2) ㄴ 첨가 예시이며, 두렛일은 (3) ㄴㄴ 첨가 예시이다. 세 낱말이 제30항의 예시 연결과 맞는다.
② X: '챗바퀴'가 틀린 표현이다. 표준 표기는 '쳇바퀴'이다. 잇몸은 (2), 훗일은 (3)에 맞지만 ㄱ 자리에 들어갈 표준 예시어 연결이 틀려서 오답이다.
③ X: 잇자국은 (1), 나뭇잎은 (3)에 맞는다. 그러나 이 문항은 규정 본문 예시어의 연결을 묻고 있으므로 ㄴ 자리에는 '멧나물'이 와야 한다. '뒷마루'로 연결한 점이 문항 기준에서는 맞지 않는다.
④ X: 사잣밥은 (1), 예삿일은 (3)에 맞는다. 다만 ㄴ 자리의 '갯날'이 틀린 연결이다. 이 자리에 대응하는 규정 예시는 '곗날' 계열이나, 이 문항의 보기에서는 '멧나물'이 맞다.

오답 포인트

사이시옷이 가능한 낱말인지와 규정 본문에 실제로 제시된 예시어인지를 구분하지 않으면 ③에 끌리기 쉽다. 특히 잇자국, 나뭇잎처럼 조건에는 맞는 낱말이 섞여 있어도 세 자리가 모두 보기의 규정 예시와 연결되는지를 끝까지 확인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뒷말 첫소리 환경을 본다. 된소리이면 (1), ㄴ·ㅁ 앞의 ㄴ 첨가이면 (2), 모음 앞의 ㄴㄴ 첨가이면 (3)으로 분류한다. 그다음 문항이 규정 본문 일부를 복원하는 형식이면 실제 예시어까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1) 된소리, (2) ㄴ 첨가, (3) ㄴㄴ 첨가로 외우면 된다. 이 문항은 못자리-멧나물-두렛일의 연결로 정리된다.

NoteBase

문 6. 다음 중 「한글맞춤법」에 맞는 문장은?

① 인삿말을 쓰느라 밤을 새웠다.

② 담뱃값 인상으로 흡연률이 줄고 있다.

③ 생각지도 않은 반응 때문에 적잖이 놀랐다.

④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사이시옷, '-률/-율', '잖/찮' 표기, '-든지/-던지' 구별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사이시옷은 합성 명사라고 해서 항상 넣는 것이 아니며 표준어로 굳어진 형태를 확인해야 한다. 한자어 뒤의 '율/률'은 앞말 끝이 받침 ㄴ이거나 모음이면 '율', 그 밖의 경우에는 '률'을 쓴다. '적잖이'는 '적지 아니하게'가 굳은 말이므로 '잖'을 쓰고, 선택이나 조건의 나열에는 '든지'를 쓴다.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부분은 '인삿말'이다. 표준 표기는 '인사말'이므로 문장은 '인사말을 쓰느라 밤을 새웠다.'로 고쳐야 한다.
② X: 틀린 부분은 '흡연률'이다. '율'은 앞말 끝이 받침 ㄴ이거나 모음일 때 쓰므로 '흡연율'이 바른 표기이다. 따라서 문장은 '담뱃값 인상으로 흡연율이 줄고 있다.'로 고쳐야 한다.
③ X: 틀린 부분은 '생각치도'와 '적잖이'이다. '생각지도'가 바른 표현이고, '적지 아니하게'가 굳은 말은 '적잖이'로 적는다. 따라서 문장은 '생각지도 않은 반응 때문에 적잖이 놀랐다.'로 고쳐야 한다.
④ O: '하든지'는 선택을 가리지 않거나 조건을 넓게 열어 둘 때 쓰는 표현이다.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맞춤법에 맞는 문장이다.

오답 포인트

①은 사이시옷을 습관적으로 넣게 만드는 함정이고, ②는 '-률'이 더 익숙하다는 이유로 소리만 듣고 고르게 만드는 함정이다. ③은 '생각치도', '적잖이'처럼 발음에 끌려 적기 쉬운 표기를 섞어 놓았고, ④는 '하든지/하던지' 구별을 묻는 대표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합성 명사는 먼저 표준 표기 자체를 확인하고, '-율/-률'은 앞말 끝소리를 기준으로 판별한다. 또 선택이나 조건의 나열이면 '든지', 과거의 회상을 나타내면 '던지'로 구분하면 빠르게 판단할 수 있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인사말, 흡연율, 생각지도, 적잖이, 하든지로 묶어 기억하면 된다.

NoteBase

문 7. 다음 중 피동과 사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동사에 따라서는 사동사와 피동사의 형태가 같은 경우도 있다.

② 사동 접사는 타동사뿐 아니라 자동사나 형용사와도 결합할 수 있다.

③ 사동문과 피동문 각각에 대응하는 주동문과 능동문이 없는 경우도 있다.

④ 일반적으로 단형 사동은 사동주의 직접 행위는 물론 간접 행위도 나타내는데, 장형 사동은 사동주의 직접 행위를 나타낸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피동과 사동의 형식적 대응 관계와 단형 사동·장형 사동의 의미 차이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피동은 주어가 다른 주체의 행위를 입는 표현이고, 사동은 주어가 다른 대상에게 어떤 행위를 하게 하는 표현이다.
단형 사동은 용언 어간에 사동 접사가 붙어 이루어지며 직접 사동과 간접 사동을 모두 나타낼 수 있다.
장형 사동은 '-게 하다' 구성으로 이루어지며 일반적으로 사동주의 간접 행위를 나타낸다.

선지별 해설

① O
사동사와 피동사는 '-이-, -히-, -리-, -기-'처럼 형태가 겹치는 접사를 쓰는 경우가 있어 겉모양이 같아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보이다'는 문맥에 따라 피동 표현과 사동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다.

② O
사동 접사는 타동사에만 붙는 것이 아니다. 자동사 '앉다'가 '앉히다'가 되거나 형용사 '높다'가 '높이다'가 되는 것처럼 자동사나 형용사와도 결합할 수 있다.

③ O
피동문과 사동문의 대응 관계는 언제나 일대일로 성립하지 않는다. 형식은 피동·사동처럼 보여도 대응하는 능동문이나 주동문을 자연스럽게 세우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이 진술은 옳다.

④ X
틀린 부분은 '장형 사동은 사동주의 직접 행위를 나타낸다'이다.
일반적으로 단형 사동은 직접 사동과 간접 사동을 모두 나타낼 수 있지만, 장형 사동은 사동주의 간접 행위를 나타내는 경우가 기본이다. 따라서 이 선지는 장형 사동의 성격을 반대로 서술하였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단형 사동과 장형 사동을 외형만으로 외우면 직접·간접의 방향을 뒤집기 쉽다. 특히 ④는 단형 사동이 두 의미를 모두 가질 수 있다는 점은 맞게 제시하고, 장형 사동의 성격만 반대로 바꾸어 헷갈리게 만든 선택지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사동 표현이 나오면 먼저 단형인지 장형인지 구분하고, 그다음 사동주가 행동에 직접 참여하는지 여부를 본다. '-게 하다'가 보이면 장형 사동으로 보고 간접 사동이 기본이라는 점을 우선 적용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단형 사동은 직접·간접이 모두 가능하고, 장형 사동은 간접 사동이 기본이다.

NoteBase

문 8.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의 품사가 다른 하나는?

① 잠이 모자라서 늘 피곤하다.

② 사업을 하기에 자금이 턱없이 부족하다.

③ 어느새 새벽이 지나고 날이 밝는다.

④ 한 마리였던 돼지가 지금은 열 마리로 늘었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밑줄 친 용언의 품사가 동사인지 형용사인지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동사는 움직임·작용·변화를 나타내고, 형용사는 성질·상태를 나타낸다.
모자라다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일을 나타내는 동사이고, 부족하다는 넉넉하지 않은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이다.
밝다는 '날이 밝다'처럼 새날이 오는 뜻으로 쓰이면 동사이고, 늘다는 수나 양이 많아지는 뜻의 동사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모자라서'의 기본형은 '모자라다'이고, 기준에 미치지 못함을 나타내는 동사이다. 이 선지를 고르면 '모자라다'를 형용사로 본 셈이 되는데 그 판단이 틀리다. 올바르게는 ①의 밑줄은 ③, ④와 같은 동사이다.
② O: '부족하다'는 자금이 넉넉하지 않은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이다. 상태의 성질을 서술하므로 다른 셋과 품사가 다르다.
③ X: '밝는다'는 '날이 밝다'에서 새벽이 지나 날이 환해지는 변화를 나타내는 동사이다. 형용사 '밝다'의 일반적 의미만 떠올리면 헷갈리기 쉽지만, 여기서는 동사로 쓰였다. 올바르게는 ③의 밑줄도 동사이다.
④ X: '늘었다'의 기본형은 '늘다'이고 수나 양이 많아지는 변화를 나타내는 동사이다. 따라서 ④도 다른 하나가 아니라 ①, ③과 같은 동사이다.

오답 포인트

①의 '모자라다'와 ②의 '부족하다'는 뜻이 비슷해서 둘 다 형용사처럼 보기 쉽다. 또 ③의 '밝다'는 평소에 형용사로 더 익숙하지만, '날이 밝다'에서는 '새날이 오다'라는 동사 의미로 쓰인다는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비슷한 뜻이라는 이유로 같은 품사라고 보면 오답이 된다. 밑줄 말이 성질·상태를 그대로 나타내는지, 아니면 어떤 움직임·작용·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먼저 가르면 정답을 고를 수 있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모자라다·밝다(날이 밝다)·늘다는 변화나 진행을 나타내는 동사이고, 부족하다는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이다.

NoteBase

문 9. 다음 중 중세국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은 ‘ㅂ’보다는 오래 쓰였지만 16세기 후반에 가서는 거의 사라졌다.

② 대략 10세기부터 16세기 말까지의 국어를 말한다.

③ 중세국어 전기에 새로운 주격 조사 ‘가’가 사용 폭을 넓혀 갔다.

④ 중세국어의 전기에는 원나라의 영향으로 몽골어가 많이 유입되었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중세국어의 시기 구분과 전기·후기의 대표적 음운·문법 변화를 정확히 연결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중세국어는 대략 10세기부터 16세기 말까지의 국어를 가리킨다.
중세국어 전기에는 고려 시대의 국어가 해당하며, 원나라와의 접촉으로 몽골어 차용어가 많이 들어온다.
중세국어 후기에는 훈민정음 자료를 통해 음운과 문법 변화를 자세히 확인할 수 있고, 주격 조사 '가'의 사용이 넓어지는 현상도 이 시기에 두드러진다.

선지별 해설

① O: 문제의 '△'는 반치음에 관한 설명으로 볼 수 있다. 반치음은 순경음ㅂ보다 더 오래 남아 있었고 16세기 후반에 이르면 거의 사라진다.
② O: 중세국어를 대략 10세기부터 16세기 말까지의 국어로 보는 설명은 일반적인 시대 구분과 맞는다.
③ X: 틀린 부분은 '중세국어 전기에'이다. 새로운 주격 조사 '가'가 사용 폭을 넓혀 가는 현상은 중세국어 전기가 아니라 후기에 두드러진다. 올바르게는 '중세국어 후기에 새로운 주격 조사 가가 사용 폭을 넓혀 갔다.'이다.
④ O: 중세국어 전기에는 원나라의 영향으로 몽골어가 많이 유입되었다. 이는 원 간섭기의 대외 접촉이 어휘에 반영된 결과이므로 맞는 설명이다.

오답 포인트

전기와 후기의 대표 현상을 뒤섞으면 ③이 맞아 보이기 쉽다. '몽골어 유입은 전기', '주격 조사 가의 확대는 후기'라는 대응을 분리해서 기억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국어사 선지에 시기 표현이 붙으면 먼저 전기와 후기의 기준을 가른다. 그다음 해당 내용이 대외 영향에 따른 어휘 변화인지, 후기 문헌에서 뚜렷해지는 문법 변화인지 연결하면 정오 판단이 쉬워진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중세국어 전기에는 몽골어 유입, 후기에는 주격 조사 '가' 확대와 반치음 소멸이 핵심이다.

NoteBase

문 10. 다음 중 국어의 문장성분에 관한 설명이 옳은 것끼리 묶인 것은?

㉠ 주어는 성격에 따라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숫자가 다르다.
㉡ 주어, 서술어, 목적어, 부사어는 주성분에 속한다.
㉢ '물이 얼음으로 되었다.'의 문장성분은 주어, 부사어, 서술어이다.
㉣ 부사어는 관형어나 다른 부사어를 수식하기도 한다.
㉤ 체언에 호격조사가 결합된 형태는 독립어에 해당된다.
㉥ 문장에서 주어는 생략될 수 있지만 목적어는 생략될 수 없다.

① ㉠, ㉡, ㉢
② ㉡, ㉢, ㉣
③ ㉢, ㉣, ㉤
④ ㉣, ㉤, ㉥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주성분, 부속성분, 독립성분의 구분과 보어·부사어의 판별, 문장 성분의 생략 가능성을 정확히 아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주성분은 문장의 골격을 이루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이다. 부속성분은 주성분을 꾸미는 관형어와 부사어이다. 독립성분은 다른 성분과 직접적인 호응 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쓰이는 독립어이다. 보어는 서술어가 '되다, 아니다'일 때 주어를 보충하는 성분인데, '얼음으로'처럼 부사격 조사와 결합한 형식은 부사어로 본다.

선지별 해설

1번: X. ㄱ은 틀리다.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수는 주어가 아니라 서술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ㄴ도 틀리다. 부사어는 주성분이 아니라 부속성분이다. ㄷ만 옳으므로 1번은 틀렸고, ㄱ은 '서술어는 성격에 따라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숫자가 다르다.'로, ㄴ은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는 주성분에 속한다.'로 고쳐야 한다.
2번: X. ㄷ과 ㄹ은 옳지만 ㄴ이 틀리므로 잘못된 묶음이다. 부사어는 주성분에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2번은 'ㄴ을 빼고 ㅁ을 넣은 묶음'으로 고쳐야 옳다.
3번: O. ㄷ은 '물이/얼음으로/되었다'로 나뉘어 주어, 부사어, 서술어가 된다. ㄹ은 부사어가 용언뿐 아니라 관형어나 다른 부사어를 꾸밀 수 있다는 설명으로 옳다. ㅁ은 체언에 호격조사가 붙은 말이 독립어가 된다는 설명으로 옳다. 따라서 옳은 것끼리 묶은 3번이 정답이다.
4번: X. ㄹ과 ㅁ은 옳지만 ㅂ이 틀리다. 목적어도 문맥이 분명하면 생략될 수 있다. 따라서 4번은 '문장에서 주어도 목적어도 생략될 수 있다.'로 고쳐야 하며, 묶음도 ㄷ, ㄹ, ㅁ으로 바뀌어야 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주성분과 부속성분을 섞어 외우거나, '되다'가 들어가면 항상 보어가 온다고 단순화하면 틀리기 쉽다. 또 주어만 생략되고 목적어는 반드시 드러난다고 생각하면 ㅂ에서 걸린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문장 성분 문제는 먼저 주성분, 부속성분, 독립성분의 목록을 분리한 뒤 조사 형태를 확인한다. 그다음 서술어가 요구하는 성분인지, 단순 수식 성분인지, 문맥상 생략 가능한 성분인지 차례로 판단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주성분은 주어·서술어·목적어·보어, 부속성분은 관형어·부사어, 독립성분은 독립어이다. 성분 수를 결정하는 중심은 주어가 아니라 서술어이다.

NoteBase

문 11. 다음 중 형태소의 개수가 가장 많은 것은?

① 떠나갔던 배가 돌아왔다.

② 머리를 숙여 청하오니.

③ 잇따라 불러들였다.

④ 아껴 쓰는 사람이 되자.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합성 용언과 조사, 어미까지 나누어 문장의 형태소 수를 정확히 세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형태소는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이다. 형태소를 셀 때는 조사와 어미도 각각 하나의 형태소로 세고, '떠나가다', '돌아오다', '불러들이다'처럼 본용언이 결합한 합성 용언은 구성 성분으로 나누어 센다.

선지별 해설

① O: '떠나갔던 배가 돌아왔다'는 '떠나/가/았/던/배/가/돌아/오/았/다'로 나누어 10개의 형태소이다. 합성 용언인 '떠나가다', '돌아오다'를 각각 둘로 나누면 네 선지 중 형태소 수가 가장 많다.
② X: '머리를 숙여 청하오니'는 '머리/를/숙이/어/청/하/오/니'로 나누어 8개의 형태소이다. 틀린 판단의 핵심은 이 선지가 가장 많다고 보는 점이다. 올바르게는 1번보다 형태소 수가 적다.
③ X: '잇따라 불러들였다'는 '잇따르/아/부르/어/들이/었/다'로 나누어 7개의 형태소이다. 틀린 판단의 핵심은 이 선지가 가장 많다고 보는 점이다. 올바르게는 1번보다 형태소 수가 적다.
④ X: '아껴 쓰는 사람이 되자'는 '아끼/어/쓰/는/사람/이/되/자'로 나누어 8개의 형태소이다. 틀린 판단의 핵심은 이 선지가 가장 많다고 보는 점이다. 올바르게는 1번보다 형태소 수가 적다.

오답 포인트

합성 용언을 한 덩어리로 세면 ①의 개수를 적게 세게 된다. 또 '청하오니'와 '불러들였다'를 통째로 보면 ②와 ③의 형태소 수를 실제보다 적게 세게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형태소 개수 문제는 먼저 조사와 어미를 따로 떼고, 다음으로 합성 용언처럼 더 나눌 수 있는 부분을 찾는다. 그 뒤 각 선지의 총개수를 비교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형태소 세기는 조사와 어미를 반드시 포함하고, 합성 용언은 구성 성분까지 나누어 센다.

NoteBase

문 12. 다음 중 서술어의 자릿수를 잘못 제시한 것은?

① 우정은 마치 보석과도 같단다. → 두 자리 서술어

② 나 엊저녁에 시험 공부로 녹초가 됐어. → 두 자리 서술어

③ 철수의 생각은 나와는 아주 달라. → 세 자리 서술어

④ 원영이가 길가 우체통에 편지를 넣었어. → 세 자리 서술어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성분의 수를 기준으로 두 자리 서술어와 세 자리 서술어를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한 자리 서술어는 주어 하나만으로 문장이 성립하는 서술어이다.
두 자리 서술어는 주어 외에 한 성분을 더 요구하는 서술어이다.
세 자리 서술어는 주어 외에 두 성분을 더 요구하는 서술어이다.
서술어의 자릿수는 수식어까지 세는 것이 아니라, 서술어가 문장 성립에 필수로 요구하는 성분만 세어 판단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우정은 마치 보석과도 같다'의 서술어는 '같다'이다. '무엇이 무엇과 같다'의 구조이므로 '우정은'과 '보석과도'가 필요해 두 자리 서술어가 맞다.
② O: '나 엊저녁에 시험 공부로 녹초가 됐어'의 서술어는 '녹초가 됐어'이다. '누가 무엇이 되다'의 구조이므로 '나'와 '녹초가'가 필수 성분이다. '엊저녁에', '시험 공부로'는 시간과 원인을 덧붙인 수식 성분이어서 자릿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두 자리 서술어가 맞다.
③ X: '철수의 생각은 나와는 아주 달라'의 서술어는 '다르다'이다. '무엇이 무엇과 다르다'의 구조이므로 '철수의 생각은'과 '나와는'이 필요해 두 자리 서술어이다. 틀린 표현은 '세 자리 서술어'이다. 올바르게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④ O: '원영이가 길가 우체통에 편지를 넣었어'의 서술어는 '넣었어'이다. '누가 무엇을 어디에 넣다'의 구조이므로 '원영이가', '편지를', '길가 우체통에'가 필요해 세 자리 서술어가 맞다.

오답 포인트

'아주', '엊저녁에', '시험 공부로' 같은 부사어를 필수 성분으로 착각하면 자릿수를 하나 더 세기 쉽다. ③은 '나와는'만 보고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 필수 성분은 '생각은'과 '나와는' 두 개뿐이라는 점이 함정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서술어를 먼저 찾은 뒤 그 서술어가 문장 성립을 위해 반드시 요구하는 성분만 남겨 본다. 시간, 장소, 원인, 정도를 덧붙이는 수식어는 지우고도 문장이 기본적으로 성립하면 자릿수에 넣지 않는다.

암기 포인트

자릿수는 꾸미는 말이 아니라 필수 성분의 수로 센다. '다르다'는 두 자리, '넣다'는 세 자리 서술어이다.

NoteBase

문 13. 다음 중 밑줄 친 부분과 비슷한 의미를 지닌 단어는?

철수와 영수는 고등학교 친구다. 그러나 졸업 후 함께 사업을 하면서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 사이가 서먹하게 되었다. 지금도 동네에서 오며 가며 얼굴은 보지만 서로 모르는 척 지나간다.

① 징건하다
② 버름하다
③ 투미하다
④ 쇠락하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사이가 벌어져 서로 서먹해진 상태'를 뜻하는 토박이말을 다른 낱말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버름하다: 마음이 서로 맞지 않아 사이가 뜬 상태를 뜻한다. 제시문의 '사이가 서먹하게 되었다'와 이어진다.
징건하다: 먹은 것이 잘 소화되지 않아 더부룩하고 그득한 느낌이 있는 상태를 뜻한다.
투미하다: 어리석고 깨우침이 느리며 재주가 무딘 상태를 뜻한다.
쇄락하다: 기분이나 몸이 상쾌하고 깨끗한 상태를 뜻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징건하다'는 속이 더부룩하거나 개운하지 않은 느낌을 나타내는 말이다. 사람 사이가 서먹해진 관계를 가리키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징건하다'이고, 올바르게는 '버름하다'이다.
② O. '버름하다'는 마음이 서로 맞지 않아 사이가 뜬 상태를 뜻한다. 제시문의 '마음이 맞지 않아 사이가 서먹하게 되었다'와 의미가 가장 가깝다.
③ X. '투미하다'는 어리석고 둔하며 깨우침이 느린 상태를 뜻한다. 관계의 소원함이 아니라 사람의 둔한 성질을 나타낸다. 틀린 표현은 '투미하다'이고, 올바르게는 '버름하다'이다.
④ X. '쇄락하다'는 기분이나 몸이 상쾌하고 깨끗한 상태를 뜻한다. 서먹하고 소원한 관계와는 반대 방향의 의미이다. 틀린 표현은 '쇄락하다'이고, 올바르게는 '버름하다'이다.

오답 포인트

낯선 순우리말이 많이 제시되면 문맥과 맞는 의미를 끝까지 대조하지 않고 어감만 보고 고르기 쉽다. 이 문항은 '서로 마음이 맞지 않다', '사이가 서먹하다'라는 관계 의미를 잡아내면 풀리는데, ①은 몸 상태, ③은 사람의 성질, ④는 상쾌한 상태를 가리킨다는 점에서 영역이 다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낯선 어휘 문제는 먼저 제시문이 가리키는 의미 영역을 정리하면 된다. 이 문항은 '인물 사이의 관계가 멀어짐'이 핵심이므로, 몸 상태나 성격, 기분을 뜻하는 말은 바로 제외하고 관계의 벌어짐을 뜻하는 말을 고르면 된다.

암기 포인트

버름하다=사이가 버러져 서먹하다, 투미하다=둔하다, 징건하다=더부룩하다, 쇄락하다=상쾌하다.

NoteBase

문 14.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의 한자 표기가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여행 도중 틈틈이 수상을 기록하여 문집을 냈다. - 首想

② 그가 사주, 관상, 수상에 능하기는 했지만 자신의 운명은 알지 못했다. - 手象

③ 어쩐지 수상하다 했더니 처음부터 범죄 의도가 있던 사람이었다. - 樹狀

④ 그는 지원자 중 유일하게 대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어 뽑혔다. - 受賞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같은 음의어인 '수상'이 문맥에 따라 서로 다른 한자어로 바뀐다는 점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수상(隨想)은 생각나는 대로 적은 느낌이나 단상이다. 수상(手相)은 손금이나 손의 생김새를 보고 운명을 판단하는 일이다. 수상하다(殊常하다)는 보통과 달리 이상하고 의심스럽다는 뜻이다. 수상(受賞)은 상을 받는 일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여행 도중 틈틈이 기록하여 문집을 냈다는 문맥의 수상은 '생각나는 대로 적은 글'이라는 뜻이므로 隨想이어야 한다. 제시된 '首懲'은 뜻이 전혀 맞지 않는다.
② X: 사주, 관상과 나란히 놓인 수상은 손금이나 손 모양으로 운명을 보는 뜻이므로 手相이어야 한다. 제시 표기는 이런 점술 의미를 나타내는 글자가 아니다.
③ X: 범죄 의도가 있어 어딘가 이상하고 의심스럽다는 뜻의 수상하다는 殊常하다로 써야 한다. 제시 표기는 '이상하다'라는 의미와 맞지 않는다.
④ O: 대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다는 말은 상을 받았다는 뜻이므로 受賞이 맞다.

오답 포인트

같은 소리의 '수상'을 모두 같은 한자로 처리하면 틀리기 쉽다. 이 문항은 문맥상 '글쓰기', '점술', '이상함', '상 받음' 가운데 어느 뜻인지 먼저 가르는지가 핵심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동음이의어 한자 표기는 소리보다 문맥으로 판단한다. 앞뒤 말이 글의 성격을 말하면 隨想, 손금과 관상을 말하면 手相, 이상하고 의심스러우면 殊常, 상을 받는 상황이면 受賞으로 정리된다.

암기 포인트

수상은 문맥으로 가른다: 생각은 隨想, 손금은 手相, 이상함은 殊常, 상 받음은 受賞이다.

NoteBase

문 15. 다음 중 <보기>의 글을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은?

<보기>
‘새말’은 바로 ‘新村’이나 ‘新里’, ‘新洞’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새말’이 있다. 특정 마을에서 분파되어 나오면 거기가 새말(새마을)이 되는 셈이다. 새말과 비슷한 또 다른 마을 이름으로 ‘新基’, 혹은 ‘新基村’이 있다. ‘新基’라 적고 ‘새터’라 읽었으며, ‘新基村’이라 적고 ‘새터말’이라 읽었다는 것이다. 그 이유를 이제는 알 것이다. 서울 지하철(5~8호선) 역명은 이러한 석독(釋讀)의 정신과 관계된다. 성북구 석관동(石串洞)의 ‘돌고지’, 은평구 신사동(新寺洞)의 ‘새절’, 서대문구 ‘아현동(峴峴洞)’의 ‘애오개’ 등이 유명하다.

① 성욱: ‘漢陽(한양)’이라 적고 ‘서울’로 읽었을 확률이 높았겠군.

② 수연: ‘모래내’라는 지명이 많이 보이는데 그것을 석독하면 ‘사천(沙川)’이 되겠군.

③ 경아: ‘大田(대전)’이라 적고 ‘한밭’으로 읽는 것과 같은 이치인데, ‘한밭’이 바로 석독이구나.

④ 재화: 광해군 때의 상궁 ‘김개시(金介屎)’가 있었는데 그 ‘개시’가 바로 ‘개똥’이야. ‘개똥’은 음독자로 이해해야 하는군.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석독이 한자를 뜻으로 풀어 우리말 고유어로 읽는 방식이라는 점과, 그것이 음독과 어떻게 구별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석독은 한자를 뜻으로 풀어 고유어로 읽는 방식이다. 보기의 '新寺洞→새절', '新基村→새터말'이 여기에 해당한다.
음독은 한자음을 그대로 읽는 방식이다. '新寺洞→신사동', '大田→대전'처럼 소리를 따르는 읽기가 음독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1) X: '漢陽'을 '서울'로 읽는 것은 보기의 석독 원리로 바로 설명되지 않는다. '서울'은 '漢'과 '陽'의 뜻을 풀어 만든 말이 아니다. 올바르게는 '漢陽'은 음독하면 '한양'이며, 석독의 예가 되려면 한자 뜻과 우리말 표현이 대응해야 한다.
2) X: 방향이 뒤집혔다. '모래내'를 뜻에 맞게 한자로 적으면 '沙川'처럼 표기할 수 있지만, '사천'은 그 한자의 음독이다. 올바르게는 '沙川'을 석독하면 '모래내'가 된다.
3) O: '大'의 뜻 '한/크다'와 '田'의 뜻 '밭'을 풀어 '한밭'으로 읽는 것은 석독의 전형이다. '大田'을 음독하면 '대전'이고, 뜻으로 읽으면 '한밭'이 된다.
4) X: '개똥'을 음독이라고 본 점이 틀렸다. 음독은 '개시'처럼 한자음을 따르는 읽기이고, '개똥'처럼 우리말로 풀어 이해하는 방식은 음독이 아니다. 올바르게는 '개똥'은 뜻으로 풀어 읽는 쪽에 가깝다.

오답 포인트

석독과 음독의 방향을 뒤집으면 틀리기 쉽다. ②는 '모래내→沙川'이라는 표기와 '沙川→모래내'라는 읽기를 섞었고, ④는 우리말 풀이를 음독으로 오인한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한자를 소리로 읽은 것인지, 뜻을 풀어 우리말로 읽은 것인지부터 구분하면 된다. 한자음을 따르면 음독이고, 한자 뜻에 대응하는 고유어로 읽으면 석독이다.

암기 포인트

'대전'은 음독이고 '한밭'은 석독이라는 대비를 기억해 두면 같은 유형을 빠르게 판별할 수 있다.

NoteBase

문 16. 다음 중 비통사적 합성어끼리 묶인 것은?

① 소나무, 빛나다, 살코기, 나가다

② 접칼, 굶주리다, 부슬비, 검붉다

③ 감발, 목발, 오가다, 새해

④ 큰집, 늦더위, 안팎, 출랑새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를 구분하는 기준을 적용해, 비통사적 합성어만 모아 놓은 선택지를 찾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통사적 합성어는 우리말의 일반적인 문장 배열 방식대로 결합한 합성어이다.
비통사적 합성어는 조사나 어미가 빠지거나, 어근이 직접 결합하는 등 일반적인 통사 구조와 다르게 결합한 합성어이다.
대표적으로 용언 어간+명사, 용언 어간+용언 어간, 부사성 어근+명사의 직접 결합은 비통사적으로 본다.

선지별 해설

① X: '소나무'는 명사+명사의 통사적 합성어이고, '나가다'는 합성어로 보지 않는 단일어이므로 비통사적 합성어끼리의 묶음이 아니다. 올바르게는 통사적 합성어나 단일어가 섞인 선택지이다.
② O: '접칼'은 '접는 칼'에서 관형사형 어미가 생략된 형태이고, '굶주리다'는 '굶고 주리다'에서 연결 어미가 생략된 형태이다. '부슬비'는 부사성 어근+명사의 직접 결합이고, '검붉다'는 '검고 붉다'에서 연결 어미가 생략된 형태이므로 모두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③ X: '새해'는 관형사 '새'+명사 '해'의 통사적 합성어이므로 전부를 비통사적 합성어로 묶을 수 없다. 올바르게는 비통사적 합성어와 통사적 합성어가 섞인 선택지이다.
④ X: '큰집'은 관형사형 '큰'+명사 '집'의 통사적 합성어이고, '안팎'도 명사와 명사가 결합한 통사적 합성어로 본다. 따라서 비통사적 합성어끼리의 묶음이 아니다. 올바르게는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가 섞인 선택지이다.

오답 포인트

비통사적 합성어는 낱말 하나만 보고 외우기보다 결합 과정에서 빠진 조사나 어미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③의 '새해', ④의 '큰집'처럼 익숙한 단어를 비통사적으로 착각하면 오답이 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낱말을 띄어 써 보고 자연스러운 구가 되면 통사적 합성어로, 사이에 조사나 어미를 보충해야 자연스러우면 비통사적 합성어로 판단한다. 또한 단일어가 섞여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암기 포인트

어미 없이 바로 붙으면 비통사적, 자연스러운 구로 풀리면 통사적이다.

NoteBase

문 17. 다음 중 「표준어 규정」에 맞게 발음한 문장은?

① 불법[불법]으로 고가[고까]의 보석을 훔친 도둑들이 고가[고가]도로로 도망치고 있다.
② 부정한 사건이 묻히지[무치지] 않도록 낱낱이[난나치] 밝혀 부패가 끝이[끄치] 나도록 해야 한다.
③ 꽃 위[꼬 뒤]에 있는[인는] 나비를 잡기 위해 나비 날개의 끝을[끄츨] 잡으려고 했다.
④ 부자[부□자]간에 공동 운영하는 가게에 모자[모자]가 들러 서로 모자[모□자]를 선물했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표준 발음법을 실제 어휘에 적용하여 된소리되기, 비음화, 구개음화, 연음, 장단음을 정확히 판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사례 정리

각 선지는 단어를 문장 속에 넣고 그 단어의 표준 발음을 대괄호로 제시하고 있다.
판단의 핵심은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형태소 경계가 어디인지, 그 자리에 적용되는 발음 규정이 무엇인지를 차례로 확인하는 데 있다.

핵심 개념

표준 발음 문제는 글자 모양만 보지 않고 실제 단어의 의미와 형태소 결합을 함께 보아야 한다.
한자어는 같은 표기라도 뜻에 따라 표준 발음이 달라질 수 있고, 받침과 뒤 음운의 결합에서는 비음화·구개음화·연음이 규정대로 적용된다.
또한 2016년 기준 표준 발음에서는 장단음 구별도 판단 근거가 된다.

적용 기준

먼저 단어의 뜻을 확정한 뒤 사전에 올라 있는 표준 발음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본다.
그다음 받침 뒤에 오는 소리가 자음인지 모음인지, 실질 형태소인지 조사인지에 따라 된소리되기·비음화·구개음화·연음을 적용한다.

NoteBase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서울시/7급 · 국어 · 2016 · 6월

선지별 해설

① O
- 불법(不法)은 [불법]이 원칙 발음이고 [불뻡]도 허용되므로 [불법]이 틀리지 않는다.
- 고가(高價)는 [고까]로 발음하고, 고가(高架)는 [고가]로 발음하므로 문장 전체의 발음 제시가 맞다.

② X
- 묻히지[무치지]는 맞고, 끝이[끄치]도 맞다.
- 그러나 낱낱이는 첫 번째 받침 ㅌ이 음절 끝소리 규칙을 거친 뒤 뒤의 ㄴ 앞에서 비음화되어 [난나치]가 된다.
- 틀린 표현은 낱낱이[낟나치]이고, 올바르게는 낱낱이[난나치]이다.

③ X
- 꽃 위[꼬뒤]는 받침 ㅊ이 대표음 [ㄷ]으로 바뀐 뒤 실질 형태소 위 앞에서 연음한 발음이므로 맞고, 있는[인는]도 맞다.
- 그러나 끝을은 받침 ㅌ이 모음 앞에서 이어져 [끄틀]이 되어야 한다.
- 틀린 표현은 끝을[끄츨]이고, 올바르게는 끝을[끄틀]이다.

④ X
- 부자(父子)[부⊠자]는 맞다.
- 하지만 모자(母子)는 [모⊠자]이고, 모자(帽子)는 [모자]이다.
- 틀린 표현은 가게에 모자[모자]가 들러 서로 모자[모⊠자]를 선물했다이고, 올바르게는 가게에 모자[모⊠자]가 들러 서로 모자[모자]를 선물했다이다.

오답 포인트

겉으로 같은 표기라고 해서 같은 발음이라고 보면 틀리기 쉽다. ②는 낱낱이의 음운 변동 순서를 놓치기 쉽고, ③은 끝을을 [끄츨]로 잘못 연음하기 쉽고, ④는 모자의 뜻에 따른 장단음을 뒤바꾸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표준 발음 문제는 단어의 뜻부터 먼저 확정하고, 그다음 받침 뒤 환경을 본다. 같은 표기라도 뜻이 다르면 사전 발음이 달라질 수 있고, 받침 뒤에 ㄴ이 오면 비음화, ㅣ가 오면 구개음화, 실질 형태소의 모음이 오면 대표음으로 바꾼 뒤 연음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판단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뜻이 다르면 발음도 달라지고, 받침 규정은 비음화·구개음화·연음 순으로 실제 결과를 확인한다.

NoteBase

문 18. 다음 중 혼종어로만 나열된 것은?

혼종-어(混種語)[혼☒--] 「명사」 『언어』
서로 다른 언어에서 유래한 요소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단어

① 각각, 무진장, 유야무야
② 과연, 급기야, 막무가내
③ 의자, 도대체, 언감생심
④ 양파, 고자질, 가지각색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혼종어와 한자어를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혼종어는 서로 다른 계통의 언어 요소가 결합한 말이다. 한자어 요소와 고유어 요소가 함께 쓰인 말이 대표적이다. 한자어는 한자에서 온 요소끼리 이루어진 말이다. 구성 요소가 모두 한자어이면 뜻이 낯설어도 혼종어가 아니라 한자어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각각', '무진장', '유야무야'는 모두 한자어이다. 틀린 표현은 '혼종어로만'이다. 올바르게는 '한자어로만 나열된 것'이다.
② X: '과연'과 '급기야'는 한자어이고, '막무가내'만 고유어 '막'과 한자어 계열 요소가 결합한 혼종어이다. 틀린 표현은 '세 단어 모두 혼종어'이다. 올바르게는 '혼종어와 한자어가 섞여 있다'이다.
③ X: '의자', '도대체', '언감생심'은 모두 한자어이다. 틀린 표현은 '혼종어로만'이다. 올바르게는 '한자어로만 나열된 것'이다.
④ O: '양파'는 '양(洋)+파', '고자질'은 '고(告)+자질', '가지각색'은 '가지+각색(各色)'으로 서로 다른 계통의 요소가 결합한 혼종어이다.

오답 포인트

한자어처럼 보이는 낯선 말을 모두 혼종어로 오해하기 쉽다. 이 문항에서는 ②의 '막무가내' 하나만 혼종어인데, 이 한 단어 때문에 ② 전체를 정답으로 착각하기 쉽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단어를 보고 요소를 쪼개어 출처를 확인하면 된다. 구성 요소가 모두 한자어이면 한자어이고, 한자어 요소와 고유어 요소가 함께 있으면 혼종어이다.

암기 포인트

혼종어는 서로 다른 출신의 결합이고, 한자어는 한자어끼리의 결합이다.

NoteBase

문 19.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이 한자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중독을 떨쳐버리지 않는 게 과연 합리적인 결정일까? 좀 더 일반적인 중독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갓 볶아낸 원두를 갈아서 향이 좋은 커피 한 잔을 만들어 마시는 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 그런데 가끔 원두가 떨어진 걸 깜빡할 때도 있다. 그래서 커피를 마시지 못하면 두통이 생기고, 화가 나고, 집중도 못한다. 커피를 마시지 못하면 금단현상을 느끼는 커피 중독자인 것이다.

① 中毒-決定-集中-禁斷
② 重毒-決定-執中-錦端
③ 中毒-結定-集中-禁斷
④ 重毒-結定-執中-錦端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일상어로 익숙한 단어를 문맥에 맞는 한자로 정확히 연결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중독은 어떤 대상에 지나치게 빠져 정상적 통제가 어려운 상태이므로 中毒으로 쓴다.
결정은 판단하여 정함이라는 뜻이므로 決定로 쓴다.
집중은 한곳으로 모인다는 뜻이므로 集中으로 쓴다.
금단은 하던 것을 억지로 끊는다는 뜻이므로 禁斷으로 쓴다.

선지별 해설

1번: O. 중독-中毒, 결정-決定, 집중-集中, 금단-禁斷의 연결이 모두 맞다.
2번: X. 틀린 표현은 重毒, 執中, 錦端이다. 중독은 무겁다는 重이 아니라 中毒이고, 집중은 잡는다는 執中이 아니라 모인다는 뜻의 集中이며, 금단은 비단 끝이라는 錦端이 아니라 금하고 끊는다는 뜻의 禁斷이다.
3번: X. 틀린 표현은 結定이다. 결정은 묶는다는 結이 아니라 결단하여 정한다는 뜻의 決定이다. 나머지 中毒, 集中, 禁斷은 맞다.
4번: X. 重毒, 結定, 執中, 錦端이 모두 틀렸다. 각각 中毒, 決定, 集中, 禁斷으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뜻이 비슷하거나 음이 같은 한자를 감으로 고르면 틀리기 쉽다. 특히 결정의 決定과 結定, 집중의 集中과 執中처럼 소리는 비슷해 보여도 문맥 속 의미가 전혀 다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한자 표기는 소리보다 뜻으로 판단한다. 문맥에서 먼저 의미를 잡고, 그 뜻에 맞는 한자를 고르면 된다.

암기 포인트

중독은 中毒, 결정은 決定, 집중은 集中, 금단은 禁斷이다.

NoteBase

문 20.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의 현대어 풀이가 옳지 않은 것은?

> ᄌᆞ식이 能히 밥 먹거든 <u>ᄀᆞᄅᆞ츄ᄃᆡ</u> 올ᄒᆞᆫ손으로써 ᄒᆞ게 ᄒᆞ며 能히 말ᄒᆞ거든 ᄉᆞ나히는 ᄲᆞᆯ리 ᄃᆡ답ᄒᆞ고 겨집은 <u>느즈기</u> ᄃᆡ답게 ᄒᆞ며 ᄉᆞ나히 ᄯᅴ는 <u>갓ᄎᆞ로</u> ᄒᆞ고 겨집의 ᄯᅴ는 실로 <u>홀디니라</u>

① ᄀᆞᄅᆞ츄ᄃᆡ: 가르치되
② 느즈기: 천천히
③ 갓ᄎᆞ로: 가장자리로
④ 홀디니라: 할 것이니라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중세 국어 어휘의 뜻을 문맥에 맞는 현대어로 정확하게 풀이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그른쥬딘"은 '가르치되'의 뜻이고, "느즈기"는 '늦게, 더디게'의 뜻이다. "갓츨로"의 "갗"은 '가죽'을 뜻하며, "홀디니라"는 '할 것이니라'로 풀이된다.

선지별 해설

① O: "그른쥬딘"은 동사 '그르치다'에서 온 말로 '가르치되'라는 뜻이므로 옳은 풀이이다.
② O: "느즈기"는 '늦게, 더디게'라는 뜻이므로 '천천히'라는 풀이가 문맥에 맞다.
③ X: 틀린 부분은 '가장자리로'이다. "갓츨로"의 "갗"은 '가죽'을 뜻하므로 실제로는 '가죽으로'라고 풀이해야 한다.
④ O: "홀디니라"는 '할 것이다' 또는 '할 것이니라'의 뜻이므로 제시된 풀이가 옳다.

오답 포인트

"갓츨로"를 소리만 보고 현대어의 다른 낱말과 연결하면 '가장자리'처럼 잘못 풀이하기 쉽다. 이 문항은 비슷한 음이 아니라 중세 국어 어휘의 실제 뜻을 아는지를 겨냥한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중세 국어 어휘 문제는 음이 비슷한 현대어를 억지로 연결하지 말고, 문맥에서 그 말이 동작인지 상태인지 재료인지를 먼저 확인하면 판단이 빨라진다. 특히 '-로'가 붙은 말은 재료나 수단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느즈기=천천히", "갗=가죽", "홀디니라=할 것이니라"로 묶어 기억하면 유사한 어휘 문제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

NoteBase